

잡야함 84. 청정경

날짜: 3월 31st,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697>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색은 무상하다. 무상하다면 괴로운 것이요, 괴로운 것은 나[我]가 아니다. 나가 아닌 것에 대해 ‘그 일체는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사실 그대로 알면, 이것을 바른 관찰이라 한다. 수 · 상 · 행 · 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법문을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은 이 5수음에 대해 ‘그것은 나[我]가 아니요, 내 것[我所]도 아니다’라고 관찰한다. 이렇게 관찰하면 모든 세간에서 전혀 취할 것이 없게 되고, 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게 되며,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열반(涅槃)을 깨달아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듣고 기뻐하며 밟들어 행하였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